

2018년 의류생활용 섬유기획 및 개발 역량 강화사업

19-20 F/W

FABRIC TREND DIRECTION

: 오가닉코리아

주관 : ECO융합섬유연구원
진행 : (주)트렌드 인 코리아

2018. 07



19-20 F/W OVERVIEW

모두를 위한 윤리적 공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평화와 다양성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혁신적인 테크의 발전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듯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2019 F/W에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가능성, 첨단 테크 등 다양한 요소와 함께 어우러져 마법 같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01. 지속가능성 섬유와 원사 이용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재생 섬유, 텐셀, 모달, 오가닉 코튼, 리넨의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염료 및 마감처리를 더한 소재를 제작한다. 또한 창조적인 재활용을 통해 리사이클 캐시미어, 울,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원사로 재생산한다.

02. 차세대 기능성 원단

차세대 기능성 원단은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바이오 기반, 생분해되는 소재를 추구하면서 환경에 안전한 텍스타일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03.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구조

정보가 넘쳐나는 복잡한 현실에서 대자연과 교감하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되며 자연에 뿌리를 둔 내추럴한 컬러와 촉감을 강조한 텍스처, 사실적인 묘사부터 추상적인 분위기의 패턴을 업데이트한다.

04. 스포츠와 패션의 경계를 넘은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스타일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바쁜 도시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스타일이 필요하다. 스포츠와 패션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취향에 대한 개념이 변화한다.





From Nature : Singtex

대만 업체 Singtex는 커피 찌꺼기와 피마자 콩을 재활용한 **BIOTEC™** 원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바이오 기반 소재는 생산 과정에서 석유 소비량의 25% 이상 줄일 수 있고, 보다 나은 착용감을 제공한다. 커피 라미네이트 소재는 응결 속도를 최소화하여 옷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체취 제거에 효과적이다. 피마자 콩으로 70%로 이루어진 나일론 소재는 가볍고 뛰어난 내구성, 내마모성으로 아웃도어 소재에 적합하다.

Orange Fiber X Ferragamo

Orange Fiber의 혁신적인 시도는 쓰레기에 가치를 더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한다.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서 배출되는 오렌지 쓰레기에서 추출한 펄프에 셀룰로오스 섬유를 방적하고 직조해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의 친환경 섬유로 탄생시켰다. 2017년 지구의 날을 맞아 Salvatore Ferragamo는 Orange Fiber와 협업하여 캡슐 컬렉션으로 셔츠, 드레스, 팬츠, 스카프를 선보였다. 이번 협업으로 명품 브랜드가 친환경을 실천한 고품질 원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폐기물 최소화

Patagonia의 Capilene Air Hoody는 이음새 없는 3D 니트 구조로 만들어지고,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다. Cotopaxi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실천

THE NORTH FACE는 미국의 일부 국립공원과 손을 잡고, 폐기된 병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의 수익을 다시 각 공원에 환원한다.

Mountain Designs 또한 바다에서 수집한 굴 껍데기와 폐기된 병을 재활용해 자사의 Seawool 플란넬을 제작한다.

Nau는 18FW OR전시회에서 재활용 다운과 시어링으로 보온성을 보강한 컬렉션을 출시했다. 전반적으로 퍼포먼스 스타일을 추구하지만, PFC나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한다.





Chanel 18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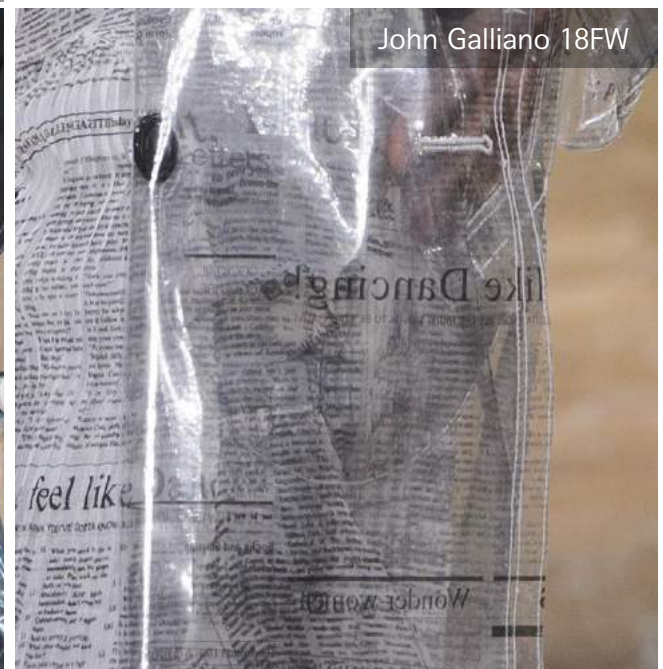
Fendi 18FW



Celine 18SS



Masion Margiela 18FW



John Galliano 18FW

새롭게 찾은 가치 : PVC소재

투명하고 플라스틱 광택이 돋보이는 PVC소재는 지난 18SS, 18FW 런웨이에서는 슈즈, 가방 액세서리 뿐만 아니라 재킷, 코트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제작되어 등장하였다. 저렴한 비닐 소재로 여겨졌던 PVC소재는 많은 명품 브랜드에서 사용하며 현재 가장 핫한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편안한 슬라운지 웨어

지난 18FW Outdoor Retailer 전시회에서 브랜드들은 퍼포먼스웨어를 뛰어넘어 편안하게 착용하고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슬라운지 웨어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코듀라는 일본 브랜드 Narifuri와 손을 잡고 라운지웨어에 새로운 차원의 내구성을 보강해, 슬라운지웨어를 넘어선 활용성을 제공한다. We Norwegians는 메리노 원단을 최대한 활용해 천연 기능을 갖춘 편안한 레이어링 아이템을 제작한다.